▪ 교회소식 ▪

1. 어버이주일 :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원로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 부활절 마지막 주 :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절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3. 청파성서학당 : 오늘 오후집회는 청파성서학당입니다.
4.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12:20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5. 웨슬리기념성회 : 웨슬리 회심 280주년 기념 성회가 13일 오후4시, 14~16일 저녁7:30에 이태원교회에서 있습니다.
6. 사랑의 저금통 : 일전에 나누어 드렸던 사랑의 저금통을 교회로(사무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모아주신 동전은 선천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7. 결혼 : 전현선 씨와 김동희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9일 낮 12시 한스갤러리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8. 신앙실천 : 아카시아 향이 참 좋은 때입니다. 그 향기 아래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요엘 2:28~32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정민	서수진

5월				
	1부 영접위원	강세기	헌금위원	이소애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임주빈 김광일 김신실 최현옥 박미영		
	2부 헌금위원	장원호 김경혜		

오늘 식당 봉사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임영선 장현희 서이순 김종성 김광일		
다음주식당봉사	곽권희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유중희 강희석 박명제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청파7속
커피 판매 봉사	4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정기

2018-19 5월 13일

11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마지막 주 】 인도 1부 : 신진식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35. 큰 영화로신 주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 희생과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평화로운 새날을 꿈꾸는 스가랴의 환상을 우리도 같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거리에는 지팡이를 짚고 모인 어르신들이 한가로이 앉아 쉬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골목에는 함께 어우러져 웃고 떠들며 뛰노는 아이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뭇 민족이 손을 맞잡고 찾아오는 평화의 땅을 우리가 만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엡2:14a,16b ····· 인도자

▲ 교 독 문 ····· 98. 어버이주일 ····· 다 함께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김인걸 장로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579. 어머니의 넓은 사랑 ····· 다 함께

▲ 성경봉독 ····· 삼상 2:22-26 ····· I. 인도자
II. 박석희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어버이의 넓은 사랑 ····· 마중물 찬양대
II. 하나님의 은혜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혜경 곽정자 구명자 국지연 김영순 김영희 김예준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훈 이진영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지현 김지훈 김진혁
신다현 김태정 김해선 김현주 문금석 문복순 박경원 박석희 조항미 박숙미
박영진 박인혁 고숙이 박재우 정충원 박창운 허정윤 박해숙 백묘현 서동우
서수진 손이주 송남필 안성호 김희숙 안종일 정현주 오미숙 원용일 최현선
유경주 윤영미 윤정득 이경남 이광석 이경희 이광섭 김수연 이순용 김신실
이완구 이우상 이계월 이은주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증자 이한림 김명희
이행진 이현죽 이고임 임명희 전찬익 이은자 정두리 정종삼 정진호 양순임
정민경 조미선 최 숙 최승주 조호진 최양순 최 현 하현일 김광우 한상익
정영선 한선희 허호범 박성실 현 진 홍윤선 무명2

감사헌금

강혜린 김기석 김희우 김성수 김영락 김중현 성귀옥 김필순 노미향 문금석
문복순 박기태 박재영 이현정 박해남 배삼순 백묘현 서애란 신진식 변혜정
안준용 이진희 안태호 엄소현 유수진 윤건희 윤미경 윤수진 이광재 이순이
이유일 김미희 이증자 임은영 임종수 장영숙 정구봉 정연경 정학성 김현숙
조소영 조순덕 최미선 최하송 한두리 한선희 한영택 황현성 이오복
김은종 김창숙(어머니 장례) 청년1 무명4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영호 김용진 박효선 김향자 박승빈 윤지선 채일석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날궂이

- 김혜수

아직도 노모는 나무라실 때

대체 뭐가 되려고 그 모양이니 그런다

아직 될 것이 남아 있다니 꿈같고 기뻐서

나 아직 할 것이 남아 있다니 눈물겹고 기뻐서

내리는 비를 피하고 있는 처마 밑

누군가 날씨가 어째 호되게 꾸중 들은 날 같냐

하니까 누군가

엄마한테 흠씬 매 맞고 싶은 날이야 그런다

자신보다 더 젊은 엄마 사진을 꺼내며

꾸지람 속으로

말 씀	**황색 시간**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축복하소서		임이랑 성도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때가 찼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불의와 악행은 꾸짖으십시오. 질정을 듣거든 멈춰 서서 새기십시오. 쓴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옳은 길을 택하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소리에 마음 뺏기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탐욕의 소리는 엄히 꾸짖고,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타이르시는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 삶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 성서 학당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이범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함께 읽는 글 ■

그 노동 덕분에

그해 여름 나는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아버지가 아무리 독재적으로 포악하게 행동해도 참고 견디기로 마음 먹었다.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그 노동 덕분에 나는 글을 읽을 시간이 있었고, 그 때문에 나의 삶이 아버지의 삶보다 더 나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마이클 더다

서평가로 퓰리처상까지 받은 마이클 더다는 아버지를 미워했다. 철강노동자인 아버지는 고된 일을 견디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밖에서 쌓인 고단함을 가족에게 풀었다. 신경질적인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은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긴장했다. 하루는 아버지 공장의 열악한 환경을 목도하고 "사탄 같은 검은 공장"이라는 구절이 시적인 표현이 아님을 절감한다. 자신이 안온하게 독서에 몰두할 수 있었음은 미워하던 아버지의 희생 덕이었음을 고백한다.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다고 구박하면서도 매번 필요한 전집을 구해 준 것 역시 아버지였다.

내 아버지는 반대였다. 가족의 생계를 적극적으로 짊어지지 않아서 고해의 무게추가 어머니에게 기울었다. 엄마를 고생시키면서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는 아빠가 많이 미웠다. 그렇다고 더다의 아버지처럼 책을 사 주지도 않았다. 아, 딱 한 번 10권 전집을 사준 기억이 난다. 하루는 어떤 아저씨가 교실에 와서 책 홍보를 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등 세계의 전설과 민담을 모아 놓은 시리즈였다. 나는 거기에 꽂혔고, 집에 와서 부모님 앞에 울며 떼를 썼다. 여태 책을 사 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는 말이 두 분 사이를 오가더니 웬걸, 주문서를 작성하셨다. 책을 받아 보니 어린 내가 보기에도 인쇄며 조판이 조악했지만 책장에 꽂아 두니 너무 근사해서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내가 대학원에서 신화와 설화 같은 고전서사를 전공한 것은 이 시절의 영향이었는지도 모른다.

나중에 또 책을 사 달라고 하자 두 분은 한숨을 푹 쉬더니 며칠 뒤에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아버지 지인 댁이었다. 고등학생 형이 "네가 그렇게 책을 좋아한다며?" 하더니 아무 책이나 편하게 빌려 가 읽으라고 했다. 어린 내 눈에 책장이 어찌나 크던지. 그토록 갖고 싶던 계림문고 250권 전집도 갖추고 있었다. 마이클 더다의 아버지처럼 매번 책을 사 주진 못했지만 맘껏 책을 빌려 볼 수 있게 해 주신 아버지 덕에 독서에 몸을 담글 수 있었다. 지면을 빌려 사례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음에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무슨 대학을 가라, 뭐가 돼라 하신 적이 없다. 대학 졸업반 땐 "집안 형편상 취업하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막상 대학원에 가자 축하해 주셨다. 나중에 전공을 바꿔 유학을 갈 때도, 무신론자의 아들이 목회자가 될 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신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내게 깨끗한 사면을 받았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 일이 못내 고맙다.

- 박총, 「읽기의 말들」(유유) 중에서